



포이에미[예수교회] 가정예배 순서지

찬양 | 꽃들도

기도 | 하나님,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나왔어요.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,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. 그리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
꽃들도

말씀 읽기 | 창세기 39:20~23

◆ 배경: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받는 일꾼이었지만,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. 가장 억울하고 캄캄한 순간, 하나님은 그 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.

[개역개정] ²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²¹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²²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 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²³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

[쉬운성경] ²⁰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.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.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²¹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,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.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. ²²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.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. ²³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잘못된 것 없이 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
2. 캄캄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인가요?
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삶의 이야기 |

1.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거나 억울했던 적이 있었나요?
그때 어떻게 행동했나요?
2.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. 내가 있는 자리 (학교, 학원, 집 등)에서 '최선을 다해 보고 싶은 일' 하나를 정해 볼까요?

축복 |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.

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캄캄한 감옥에 있을 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단다. ()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,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, 우리 가족과도 늘 함께해주세요.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,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인도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포이에미[예수교회

가정예배 순서지



주를 바라보며

찬양 | 주를 바라보며

기도 | 하나님, 한 주간 우리 가족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함께 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세요.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,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창세기 41:13~16

◆ 배경: 요셉은 죄가 없는데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, 아무도 그 뜻을 풀지 못했어요. 그때 요셉이 갑자기 왕 앞에 불러 나가게 됩니다.

[개역개정] ¹³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¹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¹⁵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¹⁶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

[쉬운성경] ¹³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.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,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. ¹⁴ 파라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.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.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도 앞에 나아갔습니다. ¹⁵ 파라도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. “내가 꿈을 꾸었는데,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.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.” ¹⁶ 요셉이 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. “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.”

- 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- 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- 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- 1. 바로 왕은 왜 갑자기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냈나요?
- 2. 바로 왕이 "너는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들었다"라고 말했다 때, 요셉은 뭐라고 대답했나요?

삶의 이야기 |

- 1. 요셉처럼 "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"라고 말하려면,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?
- 2. 우리 가족이 최근에 잘된 일이나 기뻐던 일이 있다면,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

축복 |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.

()가 잘하는 일 앞에서도 "하나님 덕분이에요"라고 고백할 줄 아는, 겸손한 사람이 되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. 잘한 일이 있어도 우쭐대지 않고,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